

▶ 학술상 수상강연

미래 웰빙형 식품소재 생산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전략

김 용 두

순천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2010년에 78.8세, 2020년 80.7세로, 80세 이상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강관리에 관한 현대인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인은 100세까지 살 것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만성질환 즉 고혈압, 당뇨, 비만의 예방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비교적 손쉬운 수단이 바로 음식이며 이러한 음식을 기능성식품 또는 웰빙식품 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웰빙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정착한 웰빙식품이란 단어는 흔히 건강기능성 식품을 이르는 한자어이다. 먼저 웰빙이라는 말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말 그대로 건강한(well, 안락한·만족한) 인생(being)을 살자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이나 안녕, 최근에는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 코드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웰빙이란 말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근원은 60~70년대 미국 히피이즘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후 80년대 여피(yuppie)족과 90년대 보보스족의 라이프스타일에도 웰빙은 중요한 요소였다.

국내에 웰빙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1997년 말부터로 파악된다. 친환경화장품 “아베다”가 수입되면서 “웰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며 2~3년간 사용되지 않았으나 2001년 이후 건강·뷰티가 일상생활의 주요코드로 사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웰빙식품은 그 흐름의 일환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대부분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이르고 있다. 이러한 웰빙식품 시장은 음식을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인식 하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대인의 식수명은 의학의 발달, 충분한 영양공급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 고혈압, 만성간질환, 당뇨 등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질환은 주로 40대 이상의 성인에게서 나타나며 많은 현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인병은 병의 진행기간이 길고 발병 후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 성인병의 발병원인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식생활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 기능성성분이 이러한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의 개선, 건강유지 및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증명됨에 따라 웰빙식품(기능성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건강기능성식품의 국내, 국외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해외까지 아우러서 살펴보자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소재 산업규모는 연간 1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기능성식품 소재는 2001년 1조 5천억원에서 2006년 3조원으로 일반소재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선진국 시장에 비하여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서양의 웰빙 개념과는 다르지만, 동양에서도 음식을 통한 각종 질병 예방 즉 웰빙은 있었다. 동양의 웰빙 개념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음과 양으로 음식을 나누고 질병예방, 치료 및 체질에 따라 권장 식품과 금기식품으로 구분해왔던 것이다. 물론 지난 60년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상당 서구화되었던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웰빙 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률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를 잘 감안하고 한국의 다양한 식품들을 활용한다면, 웰빙 식품 시장이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